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상기후 빅데이터, 기상사업자와 함께하는 기상서비스

보도자료 Press Release



배포일시	2015. 7. 23. (목) 10:00 (총 8 매)	보도시점	즉 시
담당부서	기후과학국 기후예측과	담당자	과 장 김 현 경 사무관 이 현 수
		전화번호	02-2181-0407

3개월 전망(2015년 8월~10월)
 기온은 대체로 평년보다 낮은 경향을 보이겠으며, 기온변화가 크겠음
 8월에는 많은 비가 올 때가 있겠으나, 지역적인 차이가 크겠고,
 9월과 10월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건조한 날이 많겠음

1. 날씨 전망

- (8월)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 때가 많겠음. 대기불안정과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올 때가 있겠으며, 지역적인 차이가 크겠음.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겠음.
- (9월) 북태평양고기압의 세력이 약화되면서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겠으며, 상층 한기의 영향으로 기온 변화가 크겠음. 기온은 평년보다 낮겠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겠음.
- (10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맑고 건조한 가운데,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큰 날이 많겠음.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겠음.

【 3개월(2015년 8월~10월) 전망 요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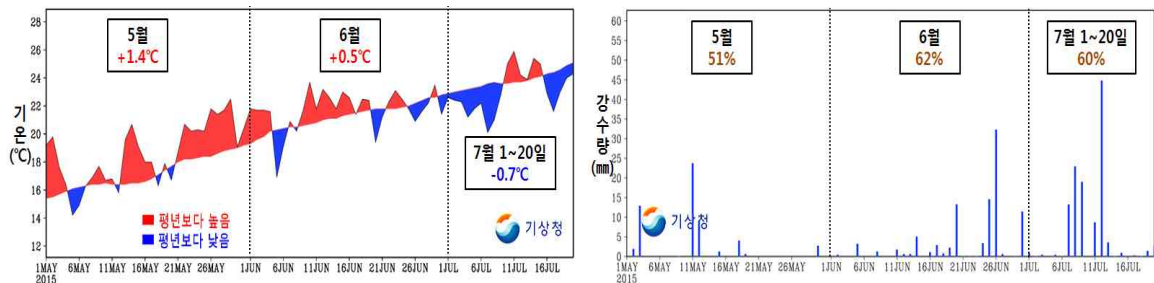
기간 \ 요소	평균기온			강수량				
	평년 (°C)	확률(%)			평년 (mm)	확률(%)		
		낮음	비슷	높음		적음	비슷	많음
8월	25.1	35	45	20	274.9	20	45	35
9월	20.5	50	30	20	162.8	50	30	20
10월	14.3	35	45	20	50.2	35	45	20

- **(엘니뇨 전망)** 현재 엘니뇨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번 예보기간동안 계속 발달할 것으로 전망됨.
 - ※ 최근 해수면온도 편차 : 6월 +1.5℃, 7월 12~18일 +1.8℃
 - ※ 엘니뇨 정의 : 엘니뇨 감시구역(열대 태평양 Nino 3.4 지역 : 5°S~5°N, 170°W~120°W)에서 5개월 이동평균한 해수면온도 편차가 0.4℃이상으로 나타나는 달이 6개월 이상 지속될 때 그 첫 달을 엘니뇨의 시작으로 봄.

2. 최근 날씨 동향

- **(5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맑은 날이 많은 가운데 낮에는 강한 일사와 함께 따뜻한 남서기류가 유입되어 기온이 큰 폭으로 올랐음. 2~3일에는 남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전국에 비가 내렸으며, 11~12일에는 서해상에서 다가온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내렸음. 15일, 18일에는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제주도와 남해안지방에 비가 내렸으며, 19일에는 북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에 비가 내렸음. 30일에는 제주도 남쪽을 지나는 저기압과 북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내렸음. 기온은 18.6℃로 평년(17.2℃)보다 높았으며(평년편차 +1.4℃), 강수량은 56.5mm로 평년(101.7mm)보다 적었음(평년대비 51%).
- **(6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는 가운데 중부지방은 남서풍의 유입과 일사로 인해 기온이 크게 올랐으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동해안지방은 동풍의 영향을 자주 받아 기온 상승이 저지되었음. 대기가 불안정하여 내륙지역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자주 내렸음. 2일에는 남서쪽에서 다가온 저기압의 영향으로 제주도와 남해안 지방에 비가 내렸으며, 5일에는 우리나라 북쪽과 남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내렸음. 8일에는 남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비가 내렸으며, 11~14일에는 북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에 비가 내렸음. 20일에는 서쪽에서 다가온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내렸음.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25~26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렸고, 30일에는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비가 내렸음. 기온은 21.7℃로 평년(21.2℃)보다 높았으며(평년편차 +0.5℃), 강수량은 96.6mm로 평년(158.6mm)보다 적었음(평년대비 62%).

- (7월 1~20일)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자주 받아 중부지방을 제외한 대부분 지방에서 기온이 평년보다 낮았음. 저기압과 대기불안정으로 인해 일부 지역에 비 또는 소나기가 자주 내렸으며, 7~9일에는 북상한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충청이남지방과 동해안 일부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음. 11~13일에는 제9호 태풍 찬홈(CHAN-HOM)의 영향을 받아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전국에 비가 내렸음. 기온은 23.1℃로 평년(23.8℃)보다 낮았으며(평년편차 -0.7℃), 강수량은 120.3mm로 평년(204.3mm)보다 적었음(평년대비 60%).
- (최근 3개월, 2015.5.1~2015.7.20) 평균기온은 20.8℃로 평년(20.3℃)보다 0.5℃ 높았으며, 강수량은 273.4mm로 평년(469.0mm)대비 57%였음.



최근 3개월 평균기온(좌)과 강수량(우)의 일변화 (2015.5.1 ~ 2015.7.20)

- ※ 첨부 1 : 최근 10년간의 기후 특성 (8월~10월)
- ※ 첨부 2 : 최근 10년간의 특이 기상 (8월~10월)

【 알 림 】

- 1,3개월 전망은 “기상청 홈페이지→날씨→특보·예보→장기예보”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3개월 전망은 2015년 8월 24일 오전 10시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 월별 평균기온 및 강수량 평년값과 평년 비슷 범위 기준표[전국 평균(제주도, 북한제외)]

기간 요소	8월		9월		10월	
	평년	평년 비슷 범위	평년	평년 비슷 범위	평년	평년 비슷 범위
평균기온	25.1°C	-0.5 ~ 0.5°C	20.5°C	-0.4 ~ 0.4°C	14.3°C	-0.4 ~ 0.4°C
강수량	274.9mm	90 ~ 110%	162.8mm	75 ~ 125%	50.2mm	80 ~ 120%

※ 확률예보 해석 기준

확률예보 값			해석
평년보다 낮음(적음)	평년과 비슷	평년보다 높음(많음)	
10	30	60	평년보다 높음(많음)
20	30	50	
20	35	45	평년보다 높거나(많거나) 비슷
25	35	40	
25	40	35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음(많음)
30	30	40	평년과 비슷
30	40	30	
25	50	25	
40	30	30	
35	40	25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음(적음)
40	35	25	평년보다 낮거나(적거나) 비슷
45	35	20	
50	30	20	평년보다 낮음(적음)
60	30	10	

- 3분위 중 어느 하나가 50% 이상이면, 하나로 발표
- 3분위 중 50% 이상이 없으면, 35% 이상인 것을 모두 발표
(단, 하위 2개가 동률일 경우(40:30:30)에는 '평년과 비슷'으로 발표)

○ 고온현상

- (2013년 8월)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어, 전국에 걸쳐 폭염과 열대야 현상이 자주 나타나 평균기온 및 평균 최고기온이 1973년 이래 가장 높았음(편차(℃) : 평균기온 +2.2, 평균 최고기온 +2.5). 가축이 폐사하고, 천여 명의 온열질환자 중 14명이 사망하였음.
- (2012년 8월 1~20일)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어 폭염과 열대야가 자주 나타나 평균기온이 1973년 이래 세 번째로 높았음(편차(℃) : 평균기온 +1.7[1위 2013년 +2.6]). 7명이 사망하고, 수백여 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하였음.
- (2011년 9월 12~17일)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의 온난 습윤한 공기유입과 낮의 강한 일사로 고온현상이 나타났음(9월 중순 일최고기온(℃) 극값 1위 : 15일 대구 34.2, 16일 고흥 34.1, 장흥 33.7, 울산 32.9 등, 17일 완도 33.0, 천안 32.5 등). 15일에는 전력수급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순환정전이 실시되어, 정전으로 공장 가동 중단, 승강기 관련 사고와 교통대란 등 각종 피해가 발생하였음.
- (2010년 8월 1일~9월 20일) 평년보다 발달한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고온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어, 평균기온과 평균 최저기온이 1973년 이래 가장 높았음(편차(℃) : 평균기온 +2.0, 평균 최저기온 +2.6). 전력수급에 비상이 걸렸으나, 해수욕장 및 여름상품의 매출은 호황을 이루었음.
- (2008년 9월 7일~24일)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평균기온과 평균 최고기온이 1973년 이래 가장 높았음(편차(℃) : 평균기온 +2.5, 평균 최고기온 +3.0), 남부내륙을 중심으로 폭염이 나타났으며, 쌀, 배 등 아열대성 작물은 유례 없는 풍작이었으나, 농작물 값이 하락하여 농가에 피해가 발생하였음.
- (2006년 10월) 동서고압대의 영향을 주로 받으면서 평균기온과 평균 최고 및 최저기온이 1973년 이래 가장 높았음(편차(℃) : 평균기온 +2.5, 평균 최고기온 +2.8, 평균 최저기온 +2.6). 특히, 10월 10일에는 동해안을 중심으로 고온이 나타나 10월 최고기온 극값(동해 29.7℃, 속초 29.3℃ 등)을 경신하였음. 높은 기온 탓에 가을 의류의 판매가 부진하고, 모기떼가 극성을 부렸음.

○ 저온현상

- (2014년 8월) 전반에는 두 차례의 태풍 영향, 후반에는 상공에 찬 공기가 유입된 가운데 저기압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내리는 날이 많아 기온이 평년보다 낮았으며, 평균 최고기온이 1973년 이래 네 번째로 낮았음(편차(℃) : 평균 최고기온 -2.1[1위 1980년 -4.0]).
- (2006년 9월 5~18일) 상층 한기의 유입으로 쌀쌀한 날이 지속되어 평균 최고기온이 1973년 이래 두 번째로 낮았음(편차(℃) : 평균 최고기온 -2.9[1위 2000년 -3.5]).

○ 많은 비

- (2014년 10월 20~22일) 우리나라 북서쪽과 일본 남쪽에 위치한 성질이 다른 두 고기압 사이에 형성된 수렴대와 중국에서 다가온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많은 비가 내렸으며, 10월 일강수량 극값을 기록한 곳도 있었음(10월 일강수량(mm) 극값 1위 : 21일 영월 68.5, 충주 86.4, 안동 63.5, 상주 78.8, 보은 81.5, 봉화 59.0, 영주 101.0, 문경 94.0 등).
- (2014년 9월 23~24일) 제16호 태풍 '풍왕'이 중국 동해상에서 열대 저압부로 약화된 후 강한 바람과 함께 다량의 수증기가 우리나라로 유입되어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많은 비가 내렸음(9월 일강수량(mm) 극값 : 24일 영주 107.5[2위, 1위 1992.09.24. 176.5], 장흥 170.0[5위, 1위 1981.09.02. 547.4]).
- (2014년 8월) 중순부터 연해주 부근에 상층 기압능이 발달하여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남하하였고,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고온 다습한 공기가 수렴되면서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자주 내려, 강수일수가 1973년 이래 두 번째로 많았음(8월 강수일수(일) : 18.2[1위 2010년 18.6] / 8월 일강수량(mm) 극값 : 18일 정읍 159.0[4위, 1위 2011.08.09. 420.0], 거제 208.0[4위, 1위 1991.08.23. 341.2], 21일 울릉도 124.5[2위, 1위 2002.08.07. 146.0], 25일 창원 246.5[2위, 1위 1991.08.23. 264.5], 금산 154.0[3위, 1위 1995.08.30. 202.0], 상주 90.1[5위, 1위 2002.08.31. 192.5] 등).
- (2012년 8월 12~16일)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비구름대가 강하게 발달하면서 많은 비(일강수량(mm) : 13일 군산 251.8, 부안 144.0, 금산 137.5, 15일 강화 235.0, 파주 226.0, 철원 174.5, 청주 165.5 등)가 내려 1명이 사망하고, 287억여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음.
- (2010년 9월 21일) 대륙고기압과 북태평양고기압 사이에 강한 정체전선이 형성되면서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음(9월 일강수량(mm) 극값 2위 : 서울 259.5[1위 1984.09.01. 268.2], 원주 209.0[1위 1990.09.11. 250.5]). 추석연휴 첫날, 광화문을 포함한 도심 곳곳이 침수되고, 2명이 사망하였으며, 1만 4천여 가구가 침수되는 등 1212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음.
- (2010년 8월 13~18일) 서해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전북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음(누적강수량(mm) : 장수 485.5, 임실 419.1, 정읍 346.5, 전주 319.5 등). 1명이 사망하고, 하천·농경지가 매몰되거나 유실되었으며, 851억여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음.
- (2006년 10월 23일) 한기를 동반한 저기압이 동해상에서 크게 발달하면서 강풍과 함께 많은 비(10월 일강수량(mm) 극값 1위 : 강릉 304.0, 속초 232.0 / 전체년도 최대순간풍속(m/s) 극값 1위 : 속초 63.7)가 내렸음. 1명이 사망하고, 주택 침수, 도로·교량 유실 등 699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음.

○ 태풍

- (2014년 10월 12~13일) 제19호 태풍 '봉풍'이 일본큐슈 남부에 상륙하여 일본 열도를 따라 빠져나가면서 우리나라는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12~13일에 걸쳐 제주도를 포함한 남해안과 동해안 지방에 많은 비가 내렸으며, 태풍 전면의 난기 유입 영향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올랐음(10월 일강수량(mm) 극값 : 13일 상산 1105.4[4위, 1위 1985.10.05. 175.2], 10월 일최고기온 극값 1위 : 12일 철원 29.0, 동두천 29.7, 파주 29.0, 홍천 28.9).

- (2014년 8월 상순) 제12호 태풍 '나크리'(1~4일), 제11호 태풍 '할롱'(9~10일)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방에 많은 비가 내렸음(8월 일강수량(mm) 극값 : 2일 고흥 306.5[2위, 1위 2002.08.31. 404.0], 남해 258.5[2위, 1위 1979.08.25. 324.5], 여수 223.6[3위, 1위 2012.08.24. 308.9], 장흥 213.5[5위, 1위 2004.08.18. 328.0], 거제 178.5[5위, 1위 1991.08.23. 341.2]).
- (2013년 10월 8일) 제24호 태풍 '다나스'가 대한해협을 통과하면서 제주도와 경상도지방으로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내렸음(일강수량(mm) : 포항 115.5, 울진 102.5, 울산 91.4 등). 1998년 이후 처음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10월 태풍으로 경상도 동해안 인근 지역에 농작물 침수 및 비닐하우스 파손 등 피해가 발생하였음.
- (2012년 8~9월) 제15호 태풍 '볼라벤'(8월 28일)과 14호 태풍 '덴빈'(8월 30일), 제16호 태풍 '산바'(9월 17일)의 상륙으로 3개의 태풍이 한반도에 연이어 상륙한 최초 사례로 기록되었으며,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내렸음(최대순간풍속(㎞) [8월 극값 1위] : 28일 완도 51.8, 군산 39.7, 수원 28.2 / 최대순간풍속(㎞) : 9월 17일 통영 39.4, 여수 38.8, 고산 35.8 / 누적강수량(mm) : 8월 27~30일 제주 357.7, 목포 283.9, 정읍 277.2, 9월 15~17일 제주 405.2, 산청 304.5, 포항 264.0 등). 7명이 사망하고, 1조 100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음.
- (2011년 8월 6~10일) 제9호 태풍 '무이파'가 서해로 북상하면서 전남 해안지역에 강풍으로 인해 방파제·선착장 등 어항시설에 피해가 컸으며,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음(8월 일강수량(mm) 극값 1위 : 9일 정읍 420.0, 임실 234.0, 7일 제주 299.0 등). 1명이 사망하였고, 주택침수 등 2천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음.
- (2010년 9월 1~2일) 제7호 태풍 '곤파스'가 서해상에 상륙하여 전국적으로 강한 바람이 불면서 관측 이래 최대순간풍속 극값을 기록한 곳이 있음(전체년도 최대순간풍속(㎞) 극값 1위 : 2일 서산 41.4, 수원 30.5, 홍천 20.7). 서울 곳곳에서 가로수가 넘어지고, 전기 공급이 끊겨 지하철이 중단되어 출근대란이 발생하였음. 6명이 사망하고, 1670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음.
- (2007년 9월 16일) 제11호 태풍 '나리'가 남해안에 상륙하여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전국에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렸으며(일강수량(mm) 극값 : 제주 420.0 [전체년도 1위], 서귀포 265.5[9월 1위], 고흥 239.0[9월 4위, 1위 1982.09.02. 487.1]), 16명이 사망하고, 475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음.
- (2006년 9월 16~18일) 제13호 태풍 '산산'의 영향으로 강풍(최대순간풍속(㎞) : 17일 여수 36.0, 부산 32.5, 18일 울릉도 45.6, 울진 35.8 등)과 해상의 높은 파도로 인해 소규모 방파제와 수산시설이 피해를 입었으며, 109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음.
- (2005년 9월 6일) 동해 남부를 북동진하여 통과한 제14호 태풍 '나비'의 영향으로 동해안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음(9월 일강수량(mm) 극값 : 울산 327.5[1위], 포항 265.0[2위, 1위 516.4 1998.09.30], 울진 185.5[1위] 등). 6명이 사망하고, 1천여 세대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176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음.